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

교육은 배우는 학생, 가르치는 교수 및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과 그 형식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은 교수와 학생을 연결시키며 대학의 기본 교육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불변의 것일 수는 없다. '인간 존중'이라는 본교의 건학이념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큰 방향성을 근간으로 하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고 있는 학문적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학생 및 사회의 요구 등 실로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해 나가야만 한다.

본교는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사랑·봉사'를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전문인 양성,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균형 잡힌 사회인 양성, 인류사회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열린 세계인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며, 이는 교육목표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본교는 이러한 교육목적 달성을 형식적 교육과정(formal curriculum)을 통해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교양과 전공교과목의 비율을 조화롭게 맞추도록 노력한다. 교양교육은 전문인 양성을 지향하는 대학교육의 기초이다. 전공교육은 교양교육의 기초 위에 개별 학문 전통에 입문하도록 한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 편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균형 잡힌 대학교육이 실시되기 어렵다. 본교는 교양교육에서 기초능력 교육을 강화해 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공교육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방향을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둘째, 필수과목의 비율을 축소하고,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간다. 필수과목 이수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과목 단위 필수이수 방식에서 블록 단위 선택이수 방식으로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로써 자기주도성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대학교육에서 점차 학습자 중심의 교육, 탐구학습, 체험학습 등이 중요시 되면서 필수교과목을 축소하고 선택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본교는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심, 필요 및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목을 집중 수학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선택폭을 넓혀 나가도록 함을 또 다른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셋째, 계열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편성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본교는 학문의 계열에 따른 특성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계열별 특성에 따른 전공별 특성화를 교육과정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이학계열은 전공기초 교육 강화에, 공학계열은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을 염두에 두는 산학연계 교과목 설치 및 맞춤형 교육과정에, 인문계열은 외국어와 폭넓은 교양에, 사회계열은 타전공 인정 학점 확대 강화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전공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탄력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원칙 설정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육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최대화 시키도록 한다.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의 선택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교과

목 선택에서도 학습자 주도로 자유로운 이수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 정책을 정하고 있다. 또한, 융복합전공(트랙) 제도를 활성화하여 2개 이상의 전공 또는 학부가 연계하여 새로운 전공(트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새로운 전공(트랙)이수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현장 밀착형 교과과정, 맞춤형 교과과정 도입의 권장 등을 통하여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본교에서는 이상과 같은 전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기본방향과 함께 교양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원칙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인성교육 강화. 인간의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주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주체에 대한 교육은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갖춘 훌륭한 인격으로 성숙하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이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 곧 참인간을 양성하려는 인성교육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공동체 및 자연에 대한 바른 관점을 견지하여 지혜와 인격적 품위를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양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지식생산의 역량과 가치를 스스로 경험하고 창출해 내는 복합적 문제해결력 강화. 이는 문제해결력, 인문창의성, 협업역량, 프로젝트 경험을 위한 교육을 키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을 통해 계발시킴으로써 변화하는 세계에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양 교육과정이 탐구하는 차원에서 실제 적용하고 공동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전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본 지식 및 태도 함양. 이는 교양과 전공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교양을 통해 광역수준의 전공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연마하고 도구적 교과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전공교육 내실화를 지향하여 교양과 전공의 균형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형태로 넘어가는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와 입체적 사고 함양.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간 중심의 융합을 위해 중핵교양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교과목 개발 및 혁신적인 교수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넘나드는 융합을 추구하면서 전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양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미래사회의 변화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교양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원칙과 아울러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원칙 역시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전공교육과정의 경우 각 전공에서 교수, 학생이 주체가 되어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교양교육과정은 전체 학교에서 통일된 원칙을 전제로 편성, 운영해 나가는 반면에 전공교육과정은 각 전공과 학과가 독자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교양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인성교육 강화,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 사회요구를 반영한 실용교육의 강화 등을 전공교육과정에서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셋째, 각 전공별 발전방향, 특성화 정책과 일관되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배우게 되는 모든 것이라는 측면에서 공식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넷째, 융복합전공(트랙) 및 학제간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2개 이상의 전공 또는 학부가 연계하여 전공(트랙)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내용에 대한 경험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융복합 교과과정은 제한적인 학교 내 전공의 범위를 넘어서 학생들의 수요와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기본 방향은 이후 본교 교육의 기본방향을 안내하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변화 수용에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가능될 수 있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특성화를 통한 거점대학화, 대학기업 설치, 산학연 클러스터 참여 요청 등이 그것이다. 우리 대학은 대내외적인 교육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맞이할 준비도 해 나가야 한다. 향후 더욱 열린 마음으로 교육과정 개혁이 실시되도록 학내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기본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충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